

Artist's Statement

이준원

”

이미 오랜 시간 존재해온 것들을 꺼낸다.
이미 내 안에 장착되어 있는 것들을 켜다.
그것들은 한 개인, 자전적인 것들도 있지만
나라는 개체를 초월하여 이미 쌓여온 것들도 있다.

”

생의 유한함에 대한 인식, 두려움과 용기, 극복과 저항, 그리고 순응 등이 뒤섞이며 만들어진 존재들... 그 원시적 에너지를 지닌 존재들이 만들어내는 풍경과 드라마. 나의 그림은 치열하면서도 자명한 전장 속에 던져진 한 개체로서의 남기는 워 페인트 (War Paint)와도 같다. 작품 속의 즉발적 얼룩들은 토템(Totem)과도 같아 거대하고 오래된 힘(Spiritual Force)을 내게 주곤 한다.